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해드려요”

## 농어촌공 전복, 농지연금 올해 70억 신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019년도 농지연금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5일까지 신규로 가입한 농가가 194농가에 30억원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13농가에 199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가 돌아가서

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높은 금리로 (연 평균 3.5%)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로 약정 해지까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사례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 박00농가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2,288㎡의 농지에 대해 매월 253만원씩, 군산시에 거주하는 66세 서00농가는 매월 300만원씩, 익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최00농가는 매월 228만원씩을 지원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농지연금사업이 인기있는 이유는 농지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의 90%로 상향조정, 농업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

영한 다양한 혜택을 가진 2018년부터 신규상품의 출시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 작년에 새로 출시된 상품은 가입초기 10년 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월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 등 3종이다.

이로써 기존의 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 기간형(5·10·15년형)과 함께 총 5종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영태기자

##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 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전주시 중화산동에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7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완산청소년문화회관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85호' 오픈식을 했다고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주시의회 백영규 시의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호 사무처장, 완산청소년문

화회집 김태석 관장 등이 참석했다. 완산청소년문화회장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정서함양 및 학습향상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래되어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책상과 의자의 교체, 내부 환경개선 등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친환경 페인트로 공부방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해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동아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개공, 만성에코르 1단지내 상가 분양 완료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내 최초로 공급한 공공임대 단지내 상가 7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 따르면 만성지구 만성에코르 1단지 단지내 상가 예약이 대비 최고 낙찰률

133.64%로 분양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에코르 1단지는 9월 입주예정인 최고 경쟁률 6.46배 1호 1순위 마감됐으며, 이번 상가는 아파트 부출입구 바로 옆 1층 상가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 육군 35사단 양파 수확 일손 돕기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이해 육군 35사단(사단장 석종건) 장병들과 함께 17일 완주군 일원에서 양파 수확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손 돕기는 2019년산 전북농협 양파제값받기 운동의 하나로 양파 주산지인 완주군 고산면, 화산면 일대에서 농협 임직원·35사단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양파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유재도 본부장은 “최근 양파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양파소비 확대를 위하여 범농협 임직원들이 1인 2망 소비 및 양파즙 먹기 운동에 동참하며, 이와 동시에 전국 계통판매장(소매·식자재)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특판 행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5개 주산지농협과 협력하여 시장격려와 함께, 대만 등 해외 주력 소비시장으로 5,600톤 이상 수출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농협이 17일 남원 용성고와 1농협-1학교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 농촌 지속 발전 위한 우수 농업인재 양성한다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17일 농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 용성고와 1농협-1학교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원농협과 용성고는 이번 교류협약을 계기로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기회 확대, 농업·농촌 지속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협력,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농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취·창업 기회 발굴에 공동으로 노력하

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하여 농업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박기열 조합장은 “지역 농업계 고등학생이 농업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농촌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농업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기자

## “미래형 제조업 시급히 키워야”

### 이 총리, “기존 정책 뛰어넘는 의욕적인 전략 내놓겠다”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제조업 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KUP 포럼’ 축사에서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조업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서비스 산업마저 취약한 것이 한국 경제의 큰 고민”이라며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의욕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역시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제조업 재구조화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며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막는다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에 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과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더 대답하게 규제를 혁파해 가겠다. 연내에 규제 샌드박스 100건이 돌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감속과 미중 경

제 충돌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높은 수출 의존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동남아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 상품도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올리며 지출을 줄여드리려 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 한다”며 “온라인 구매의 급격한 확대에 충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 등 유통업의 지원과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한국 경제가 고통의 강을 빨리 잘 건너도록 업계도 정부도 대비하고 대처해 왔지만, 업계와 정부의 대비와 대처가 완벽하다거나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변혁을 더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그 일에 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더 정교하고 더 대답하게 대처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